



우리의
家章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輔)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12세조 僉知中樞府事 戶曹參議公 諱宗直(휘종직) 墓誌銘



▶ 소재지: 남양주시오남면 양지리

공의 휘는 종직(宗直) 자는 사경(士敬)이니 죽서(竹西)는 그의 호이다. 아버지의 휘는 금(鎭)인데 과천현감(果川縣監)으로 증직이 판서(判書)이다. 어머니는 여흥민씨(驪興閔氏)이니 군수 희설(希說)의 딸이다. 가정정사(嘉靖 丁巳: 1557)년 12월 21일 공이 태어났으니 어려서부터 총명하게 빼어났으며 곧바로 학문에 뜻을 두었다. 둔암공(鈍庵公: 조부)께서 애정을 모아 가르치면서 말씀하기를 학문은 마땅히 정암(靜庵: 조광조의 호)을 표준으로 삼으면 일찍이 깨우칠 것이니 가슴에 새겨 잊지 말라 하였다.

처음 15세 때 중형인 청만 종민(晴灣 宗敏)에게 배웠고 우계(牛溪)와 율곡(栗谷) 양 선생 문하에서 공부를 했으며 또한 구봉 송익필(龜峰 宋翼弼)에게서 성리학에 관한 여러 글을 배웠는데 전심으로 독실하게 강마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여러 선생들께서 중요하게 여겼다. 약관(弱冠)에

글재주가 빛나게 들러 무성하니 한때 앞선 명사들이 모두 나이와 행실을 굽혀가며 벗하고자 했다. 신묘(辛卯: 1591)년의 진사시험에서 7번째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했는데 여론이 강개하였다. 의지와 기질이 준렬하고 선악을 분명히 가려 내어 어긋남이 없었으니 과거에서 높은 성적으로 뽑히리라고 모두들 떠들었으나 결국 이롭지 못했다. 계사(癸巳: 1593)년에 천거로서 금오랑(金五郎)이 되고 군사감 참봉(軍資監參奉)으로 옮겨 직장(直長)으로 뛰어 올랐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을미(乙未: 1595)년에 다시 직장을 시켜서 정유(丁酉: 1597)년에 수운판관(水運判官)으로 뽑아 올리고 2년 뒤에 사옹원 봉사(司饗院奉事)로 불러들여서 이어 직장으로 옮겼다. 신축(辛丑: 1601)년에 내자시 직장(內資寺直長)으로 옮기고는 곧바로 사도시 주부(司導寺主簿)로 올랐고, 형조좌랑(刑曹佐郎)을 거쳐 호조(戶曹)로 전직되었다가 한 차례 교체되고 다시 좌랑이 되었다. 을사(乙巳: 1605)년에 태천현감(泰川縣監)으로 나갔다가 무신(戊申: 1608)년에 강서현령(江西縣令)으로 한 차례 옮기고는 다시 호조좌랑으로 교체되어 들어왔다. 경술(庚戌: 1610)년에는 평양 서윤(平壤庶尹)으로 나갔다가 인해 풍덕군수(豊德郡守)로 제직되었으나 4년만인 갑인(甲寅: 1614)년에 또다시 호조좌랑으로 들어왔다가 황주판관(黃州判官)으로 옮겨 나갔다. 정사(丁巳: 1617)년에는 문경현감(聞慶縣

監)이 되고 만기가 되어 홍산(鴻山)으로 갔다가 계해(癸亥: 1623)년에 송도경력(松都經歷)으로 옮겼다. 다음해에 광흥창 수(廣興倉 守)가 되고 을축(乙丑: 1625)년에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으로 오르고 제용감 정(濟用監 正)이 되었는데 정묘(丁卯: 1627)년에 호구(胡寇)가 급히 침범하는 보고로써 인조왕(仁祖王)께서 강화도(江華都)로 파견할 때 공이 어가를 뒤흔다다 환도한 뒤에 삼감(三監)에서 그 공로에 대한 포상으로 통정계(通政階)에 특진되고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를 제수한 다음 오위장(五衛將), 판결사(判決事), 호조참의(戶曹參議)를 두루 거쳤다. 공이 일찍이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는데 삼감(三監)에서 가납하였다. 그러나 상소문 중에 거슬리는 대목이 많아서 좌절되었고 이로써 포부를 능히 펴보지 못했으니 아깝다. 송정신미(崇禎 辛未: 1631)년 11월 25일 정침(正寢)에서 고종(考終)하니 수가 75였고, 광주(廣州)의 선산에 장사 지냈다. 부인은 양천 허씨(陽川許氏) 상(鎭)의 딸과 전주최씨(全州崔氏) 응성(應成)의 딸과 양천허씨(陽川許氏) 신(信)의 딸로서 무릇 세 번 장가들었다. 공은 천성이 순수하여 밖으로는 온화하나 의지는 확실히 덕성이 충만하고 행위가 완비하였으니 한결같이 충성과 신의로써 주장을 삼아서 7읍을 두루 다스렸는데 청렴을 몸에 쌓아서 정성으로 일을 처리하였으며 갑자기 뒤섞이고 복잡한 일을 당하더라도 귀신같이 처결했으니 비록 관리로써 이름이 있는 자라도 공이 다스리는 도리를 들으면 문득 눈이 휘둥그렇게 되어 드디어 감복하게 되고, 매양 임기가 끝나서 떠나게 되면 농민들이 그의 은혜를 노래하며 비석을 세웠다. 폐조(廢朝: 광해군을 이름)를 당하여 정사가 혼탁함에 서호(西湖)에 피해 살며 시와 술로써 스스로 즐겼으며 비록 여러 차례 고을 살이를 했더라도 그의 뜻이 아니었다. 백형인 참의공(參議公) → 2면에 계속

2010年度 秋季時享日表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始祖	文林郎公(휘: 洪孚)	10. 16	9. 9	土	靑松郡 청송읍 덕리 보광산
	中臺山所	10. 16	9. 9	土	靑松郡 청송읍 부곡리 중대산
二	閣門祗候公(휘: 淵)	10. 18	9. 11	月	益山市 함열읍 남당리 남당산
二	奉翊大夫公(휘: 晟)	11. 1	9. 25	月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靑華府院君(휘: 龍)	10. 20	9. 13	水	安城市 당왕동
三	靑華府院君 配位 金氏	10. 20	9. 13	水	安城市 도기동
三	判書公(휘: 漣)	11. 1	9. 25	月	鐵原郡 동송읍 양지리(설단)
三	上護軍公(휘: 卿)	11. 1	9. 25	月	"
四	靑城伯(휘: 德符)	10. 22	9. 15	金	漣川郡 미산면 아미리
四	청성백 配位 淸州 宋氏	10. 24	9. 17	日	淸州市 흥덕구 분평동
五	都摠制公(휘: 仁鳳)	10. 24	9. 17	日	"
五	判事公(휘: 義龜)	11. 20	10. 15	土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五	知成主事公(휘: 繼年)	11. 20	10. 15	土	光州市 光산구 송치동 용진산
五	지성주사공 配位 崔氏	11. 21	10. 16	日	全南 장성군 황용면 외곡리
五	仁壽府尹公(휘: 澄)	10. 24	9. 17	日	全北 완주군 화산면 운산리
五	安孝公(휘: 溫)	9. 22	8. 15	秋夕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산의실

世	諱(이름)	陽曆	陰曆	曜日	住 所 地
五	三韓國夫人 順興安氏	10. 21	9. 14	木	安城市 금광면 오흥리 능말
五	청원군(휘: 淙)	11. 13	10. 8	土	坡州市 문산읍 사목리
五	현령공(휘: 天柱)	10. 31	9月末週	日	安東市 풍천면 인금리
五	돈제공(휘: 天湜)	11. 17	10. 12	水	慶南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六	평산부사공(휘: 灑)	11. 7	10. 2	日	原州 단계동 사천마을(설단)
六	좌랑 공(휘: 溝)	11. 20	10. 15	土	全南 보성군 북내면 장천리
六	애암 공(휘: 涓)	11. 22	10. 17	月	光州 光산구 감적동 가정산
六	良惠公(휘: 石雋)	10. 27	9. 20	水	龍仁市 포곡면 가실리
六	領中樞公(휘: 濬)	11. 6	10. 1	土	水原市 영통구 이의동
六	恭肅公(휘: 澮)	9. 22	8. 15	秋夕	坡州市 월농면 영태리
六	靖夷公(휘: 決)	11. 7	10월첫째	日	龍仁市 양성면 장서리
六	증참판공(휘: 孝鼎)	11. 10	10. 5	水	靑松郡 파천면 용덕리(설단)
六	연일공(휘: 自鼎)	11. 14	10월둘째	日	포항시 남구 대송면 대각리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時享 陽曆 10월 28일(목) (陰曆: 9월 21일)
(每年 陰曆 9월 21일 구미시 고이읍 예강1리 묘소)

께서 엉뚱하게 죄망에 걸려들어 일이 장차 불측하게 되었을 때 공의 성력에 힘입어 마침내 벗어나게 되었으니 대개 그 정성과 애정에 사람들이 감동케 되었으니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공이 황주에 재임할 때, 중씨(仲氏)께서 서부(西府)로부터 해임하고 돌아왔을 때 공이 공관으로 사람을 맞이하여 병을 보살피며 곁을 떠나지 않았으나 종말이 불행하게 되었는데 초상절차를 한결같이 문공(文公 : 주희의 시호) 가례(家禮)에 의거하고 조금도 흠결이 없었다. 송구봉(宋龜峰)이 원수진 집으로부터 모함을 입어 죽은 뒤까지 천한 이름을 씻어내지 못하여 공께서 수몽 정업(守夢 鄭曄)과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과 약봉 서성(藥峯 徐滄)으로 더불어 항의한 글이 강직하여 선비들의 논의가 많았었다. 공이 홍산(鴻山)에 있을 때 손수 그의 남긴 글을 추려서 세상에 간행하였고 정수몽이 그 문집에 서문을 썼는데 요약해 이르기.

『당시 선생님께 진학한 이는 사경(士敬)과 나, 3~4명이 세상에 남아 있는데 사경의 맑은 지조와 영향 받은 혜택을 한 지역에서 노래로 칭송하고 있으니 그의 품자집과 사물에 미침이 가히 배운 바를 망각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홍산현에 무량사(無量寺)라는 사찰이 있는데 동봉 김시습(東峰 金時習)이 이곳에서 지내면서 자그마한 초상화를 남겼는데 이는 동봉 스스로 참여한 것으로서 산구렁에 방치된 것을 공이 맡아서 절간 옆에 작은 방을 하나 꾸며서

그 초상을 안치하고 이름을 청풍각(淸風閣)이라 하고 유생으로 하여금 춘추로 제사토록 하였으니 이 또한 풍화사업의 한 가닥 사례이다. 공이 젊었을 때 수몽, 사계와 더불어 동문의 막역한 벗이 되어 일찍이 스승의 훈회를 받들고 함께 도의를 연마하여 서로 함께한 정을 늙도록 퇴색시키지 아니했다. 동악 이안눌(東岳 李安訥)이 제문에서 이르기를 청렴한 지조는 세인이 감복했다 했고 (廉淸爲世腹), 태당 이식(澤堂 李植)은 이르기를 세상에서 죽서(竹西)를 빙옥(氷玉)같은 지조라 했으니(世稱竹西氷之操), 이는 공의 사립됨을 가히 엿볼 수 있고 또한 죽히 믿을 만한 신빙을 두 었도다.

공은 시와 문장의 격률에 있어서 청수하기 그지없고 소리와 기운이 법칙에 맞고 아담하여 돌아붙이면 구슬같이 청아하게 그 음정을 풀어보면 신선과 같은 넓은 재주를 담고 천지의 기밀이 그 속에 자재하니 비록 응성할 때의 당나라 문장가들로도 실로 쉽게 분변하지 못할 것이다. 일찍이 오봉 이호민(五峯 李好閔)과 지봉 이수광(芝峯 李晔光)과 오산 차천로(五山 車天輅)와 석주 권필(石州 權躡)과 동악(東岳), 태당(澤堂) 제공으로 더불어 비원(秘苑)에서 문장을 겨뤘는데 거개가 주장하여 말하였다.

『심공은 진실로 문장가 중의 노장들로도 따라 잡을 수 없다.』

중국의 관원들이 공의 시를 보고서는 존중하고 논평을 더해 칭찬하기를 진정코 절대한 희귀문이니 마땅히 돌아

가서 강남(江南)에 발표하고 귀국에 문물이 풍성함을 자랑 하리라고 하였다. 공이 일상 정리해 놓은 시편 문서들이 무척 많았으나 전란중에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 비록 많지 않으나 큰 풀무가에서 두세 점 잃었다하여 금이 세상에서 어찌 축나리오, 한 수레의 정교한 글이 오랜 세월동안 연마중에도 필요한 외톨 글자를 잃지 않았다면 그 부유한 것과 비교할 때 많은 것과 더불어 어느 것을 택할지 모르겠다.

공의 종손(從孫)인 의정공 지원(議政公 之源)이 홍주목사(洪州牧使)로 있을 때 공의 문집(文集)을 다듬고 태당(澤堂)이 발문(跋文)에서 도리에 맞는 인물이라고 평한 바 있으며 공의 시를 많이 찾아내었으나 환수하지 못한 채 교체되어 돌아오고 아직껏 출판되지 못했다. 시는 도합 4집인데 집에 소장되어 있다. 아! 공이 우계와 율곡 선생의 문하에서 수업을 하며 학행을 여러 유럽 가운데 잘 수렵하였으니 학식의 뛰어남과 시문의 넉넉함을 진실로 당세의 사람들이 소중히 여겼으나 종용하게 스스로 지키며 진취할 뜻을 두지 않았으니 관록도 그의 덕성에 맞지 않았고 쓰임도 그의 재주를 다하지 못했으니 시가 사람을 공하게도 하고 창달하게도 함이 자못 허언이 아님을 믿겠도다.

공의 증손인 익태(益泰)가 묘지(墓誌)를 부탁하고자 찾아왔기에 사양하지 못하고 대략 평소 공을 경양하던 바를 서술했다.

방손(傍孫)인 사간원 헌납(司諫院 獻納) 준(峻)이 글 지음

조선조 왕비의 고향을 승향한 사례

■ 朝鮮朝 王妃의 故鄕을 陞鄕한 事例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살펴 볼 때 조선시대에 있어서 왕후를 예우하여 연고지를 승격하는 예는 손꼽을 만 한데 조선 초기에 몇몇 郡 縣이 승격되어 조선조 갑오 개혁 시까지 이어 존속했다.

[왕후의 연고지가 상급 지방관서로 승격된 사례]

- 潭陽都護府 : 定宗妃 定安王后 慶州 金氏 外鄕(定宗朝)
- 驪州牧 : 太宗妃 元敬王后 驪興 閔氏 故鄕(太宗朝)
- 靑松都護府 : 世宗妃 昭憲王后 靑松 沈氏 內鄕(世祖5年)
- 仁川都護府 : 世宗妃 昭憲王后 靑松 沈氏 外鄕(世祖6年)
- 坡州牧 : 世祖妃 貞喜王后 坡平 尹氏 故鄕(世祖6年)

[※ 자료출처 : 신동국여지승람]

왕후의 고향을 승향(陞鄕)함에 있어서는 왕후의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定宗妃 定安왕후 慶州 金氏는 인자 후덕하여 정종이 조기에 선위 하도록 하여 및 천수를 다하게 한 내조가 있었으며, 太宗妃 元敬왕후 驪興 閔氏는 태종이 왕자의 난을 통하여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다했다.

世宗妃 昭憲王后 靑松 沈氏는 부친 심온(沈溫)이 사사(賜死)되고 폐비의 위기를 겪는 비운을 겪었으나 사사로움이 없고 인자 후덕하였으며, 세종조에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내조의 공이 지대하였다.

그리고 世祖妃 貞喜왕후 坡平 尹氏는 수양대군(首陽大君)의 김종서(金宗瑞) 등의 제거를 위한 거사 때 용병(用兵)이 누설되어 손석손(孫碩孫) 등의 만류가 있었으나, 대군(大軍)이 중문에 이르자 정희왕후가 갑옷을 들어 입혀서 용병을 결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왕실에 기여한 공이 어느 누구보다 컸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담양, 여주, 파주는 왕후의 생존 시에 승격되었으나 靑松과 仁川은 昭憲王后 사후에 추모하여 승격한 것이며, 이 또한 친가와 외가를 모두 승격한 유일한 사례이니 소헌왕후가 왕실에 끼친 공로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新增東國輿地勝覽]

仲秋節에 떠오르는 김삿갓 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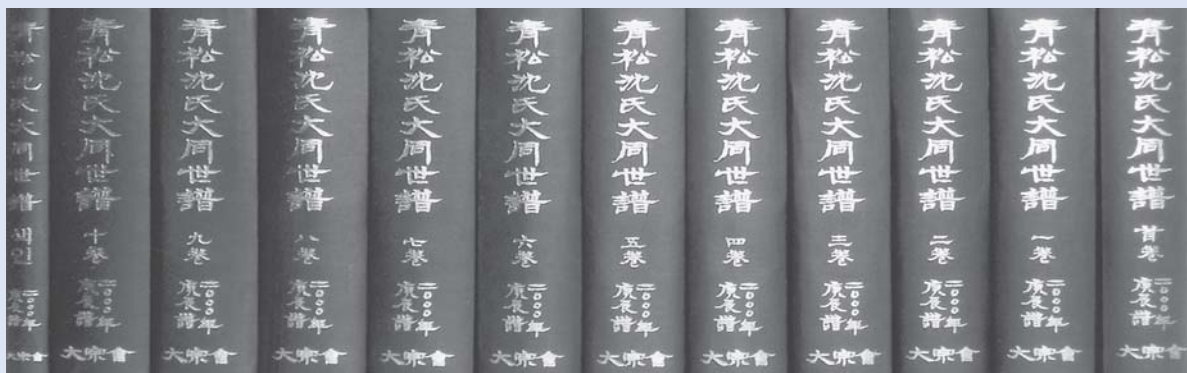
松餅(송병) / 송편떡

手裡廻廻成鳥卵
(수리회회성조란)
指頭個個合蚌唇
(지두개개합방진)
金盤削立峯千疊
(금반삭립봉천첩)
玉箸懸登月半輪
(옥저현등월반륜)

손 안에서 뱅뱅 돌아 새알이 되고
손가락이 주무르더니 조개 입술이 되다.
그를 소반 위에 올리니 일천 피 뿌리요
젓가락에 끼워 들 제 허공에 반달이 떠오르다.

윤김 文化部長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수권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뺨지 포함) : 100,000원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왕후(王后)의 성은 심(沈)씨로, 청송(靑松) 세가(世家)다. 황증조(皇曾祖)의 휘(諱)는 용(龍)으로, 고려(高麗) 증(贈) 문하시중(門下侍中) 청화부원군(靑華府院君)이고, 황조(皇祖)의 휘(諱)는 덕부(德符)인데, 고려 공민왕(恭愍王)을 도와 두 번 시중(侍中)이 되었고, 우리 공정왕(恭靖王)때에 이르러 의정부 좌정승(議政府左政丞)이 되어 청성백(靑城伯)에 봉작되었다. 황고(皇考)의 휘(諱)는 온(溫)이고, 황비(皇妣) 안(安)씨는 삼한(三韓) 국대부인(國大夫夫人)에 봉작되었는데, 보국승록대부(輔國崇祿大夫)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시호 소의공(昭懿公) 천보(天保)의 딸이다.

홍무(洪武) 28년(1395) 9월 28일 양주(楊州) 사제(私第)에서 왕후를 낳았다. 왕후는 나서부터 정숙하고 완만(婉婉) : 태도가 아름답고 부드러운데 오직 덕(德)을 행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출함(出閤) : 대군이나 왕자가 장성하여 사궁(私宮)을 짓고 살(室)하실 때에, 태종 대왕(太宗大王)께서 훌륭한 문족(門族) 중에서 배필을 구하였다. 영락(永樂) 6년(1408)에 왕후가 장차 계(笄) : 비녀를 꽂음하게 되자, 덕행과 용의(容儀) : 의식에 맞는 태도와 몸가짐)로 뽑혀 와서 빈(嬪)이 되어, 경숙옹주(敬淑翁主)로 봉작되었다. 공경하여 양궁(兩宮)을 섬기어 두텁게 사랑을 받으며, 가실(家室)이 화목한 날 내당(內堂)에 정위(正位)해서는, 인자하고 겸소하여 엄숙하고 온화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왕후가 들어오고 물러갈 때는 전하께서 반드시 일어서시니, 그 공경하고 예로 대하심이 이와 같았다. 영락 15년(1417) 9월에 삼한 국대부인(三韓國大夫夫人)으로 고쳐 봉하였다.

▶영락 16년(1418) 여름에 문무백관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저궁(諸宮)이 덕스럽지 못하니, 청컨대 어진 이를 가리어 세자를 세우소서.”하였다. 태종 대왕께서 그대로 좇으시어서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께 갖추어 아뢰어서 전하를 책립하여 왕세자를 삼고, 왕후를 봉하여 경빈(敬嬪)을 삼았다. 이 해 9월에 전하가 태종의 내선(內禪) :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받아 즉위하고, 12월에 왕후를 봉하여 공비(恭妃)를 삼았다. 영락 19년(1421) 9월에 태종 문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특별히 단견(段絹)을 내리고, 이로부터 홍희(洪熙 : 1425) · 선덕(宣德 : 1426~1435) 사이에 금단(錦段) · 사라(紗羅)의 하사(下賜)가 여러 번 이르렀다.

선덕(宣德) 7년(1432) 정월에 유사(有司)가 말하였다.

“중궁(中宮)에게 미칭(美稱) : 특정한 빈호(빈호)이 있는 것은 옛 법이 아닙니다.”이에 5월에 왕비로 고쳐 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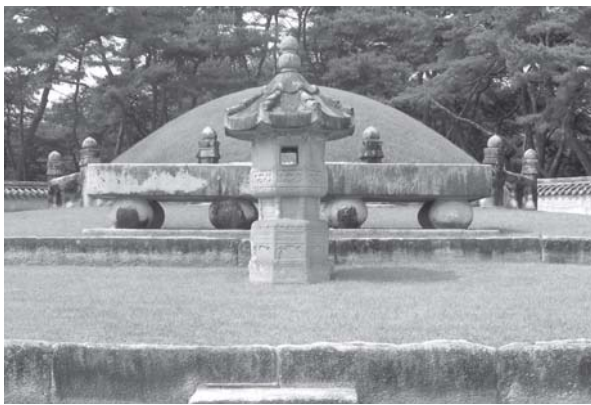
왕후의 인자하고 어질고 성스럽고 착한 것은 천성으로부터 나왔다. 중궁에 정위(正位)한 뒤로는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여 빈잉(嬪媵) : 시중드는 여인들을 예(禮)로 접대하고, 아래로 궁인에 미치기까지 어루만지고 사랑하여 은혜를 가하지 않음이 없었다. 후궁이 나와서 빙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위로하고 응답하여 마지않으며, 만일 상

昭憲王后 英陵誌

(소헌왕후 영릉지) 번역문

감께서 총애하신 자는 특별히 융성한 대우를 주어, 지극한 정(至情)에 차별이 없으며, 여러 아들들을 모두 잘 기르되 구별을 두지 않았고, 후궁 소생들을 마음을 다하여 길러서 자기 소생보다 낮게 하였다. 또 일을 위임하여 의심하지 않고 맡기시니, 후궁 또한 지성껏 받들어 순(順)히 하여 게을리 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빈잉(嬪媵) 이하가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부모 대접하듯이 하였다.

서출(庶出) : 첩의 자제)의 자식 보기를 모두 소생 아들과 같이 하였으며, 어선(御膳) : 임금님의 하사품이 나오면 반드시 몸소 살펴보고 사무를 볼 때는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다. 국모(國母)로 있는 지 29년 동안에 경계(敬戒) : 잘못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마음을 가다듬어 조심함)와



내조가 있고 연안(宴安) : 편안히 지냄)의 사사(私事)가 없었으며, 한 번도 친척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또 절대로 비깔일에 참여하지 않고, 비록 궁중에서 날마다 하는 사소한 일이라도 반드시 위에 아뢰어 감히 임의로 하는 일이 없었다.

곤의(肅儀) : 왕후의 바른 자세)가 심히 발라서 덕화가 밖에 흘렀으며, 여러 아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반드시 의방(義方) : 덕의에 알맞은 교훈)으로 하여 인지(麟趾) · 종사(蟲斯) : 부부가 화합하여 자손이 번창 함)의 경사가 있었다. 대개 하늘이 성인을 낳아, 반드시 어진 배필을 지어서 지극한 다스림(至治)을 이룬다. 주(周) 나라의 태사(太似)는 풍아(風雅)에 파영(播詠)되어 천고에 빛났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이미 지극한 덕과 지극한 다스림으로 문왕(文王)의 뒤를 따르는데, 왕후께서도 이와 같은 덕과 행실이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지은 배합이 됐으니, 文王이 후비가 예전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정통(1446 : 明正通 11)년 3월 초 10일에 왕후께서 병환이

드시자, 전하께서 낮과 밤으로 임하여 보시고, 동궁 이하가 옆에서 친히 탕약(湯藥)을 받들어, 무릇 의료(醫療)와 기도(祈禱)에 극진한 정성을 드리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이 달 24일 별궁에서 승하 하셨다. 이때 춘추가 52세이다.

안으로는 궁첩(宮妾)과 밖으로는 대소 신료(臣僚)에서 복레(僕隸) : 노비들)에 이르기까지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하늘이 어찌하여 아름다운 덕은 후하게 주시고, 오직 수고(壽考) : 수명은 주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아아, 슬프다. 전하께서 어진 보좌를 일찍 잃으심을 슬퍼하시고 애도(哀悼)를 이기지 못하여, 백의와 소선(素膳)으로 30일을 마치시고, 책과 시호를 내리시어 소헌왕후(昭憲王后)라 하였다. 영릉(英陵)을 헌릉(獻陵) 서강(西岡) : 서쪽 언덕)에 다스리어, 궁은 같이하고 실(室)은 달리하여 동쪽 실에 편안히 모셨는데, 이것은 예(禮)다.

황후께서는 8남과 2녀를 낳으셨다.

만아들은 향(响)으로 왕세자(王世子)로 책봉되고, 둘째 아들 유(柔)는 수양 대군(首陽大君)을 봉하고, 셋째는 용(潞)으로 안평대군(安平大君)을 봉했고, 넷째는 구(瞿)로 임영대군(臨瀛大君)을 봉하고, 다섯째 여(璵)는 광평대군(廣平大君)을 봉하였는데 2년 먼저 졸하였다. 여섯째 유(瑜)는 금성대군(錦城大君)을 봉하고, 일곱째 임(琳)은 평원대군(平原大君)을 봉하였는데 1년 먼저 졸하였다. 여덟째 염(琰)은 영응대군(永膺大君)을 봉하였다.

맏딸은 정소공주(貞昭公主)인데 일찍 졸하였고, 둘째는 정의공주(貞懿公主)인데, 광덕대부(光德大夫) 안 맹담(安孟聃)에게 하가(下嫁)하였다. 왕세자 빈(嬪) 권(權)씨는 증(贈) 의정부 좌의정(議政府左議政) 전(傳)의 딸인데, 원손(元孫)과 평창군주(平昌郡主)를 낳고, 일찍 졸하였다. 사직(司直) 양(楊)씨는 딸 하나를 낳았고, 궁인 장(張)씨는 아들 하나를 낳았고, 정(鄭)씨도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수양(首陽)대군은 중추원사(中樞院使) 윤 번(尹璠)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 2녀를 낳았는데, 아들 승(崇)은 도원군(桃原君)을 봉하고, 딸은 모두 어리다. 안평(安平)대군은 증의정부 좌의정 정연(鄭淵)의 딸에게 장가들어 2남 1녀를 낳았는데, 첫째 우직(友直)은 의춘군(宜春君)을 봉하고, 나머지 모두 어리다. 임영(臨瀛)대군은 증 의정부 우의정 최승녕(崔承寧)의 딸에게 장가들어 3남 1녀를 낳았는데, 맏아들 주(澍)는 오산군(烏山君)을 봉하고, 나머지 모두 어리다. 광평(廣平)대군은 중군(中軍) 호군(護軍) 신자수(申自守)의 딸에게 장가들어 1남을 낳았는데 어리다. 금성(錦城)대군은 증 좌의정 최사강(崔士康)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며, 평원(平原)대군은 증 좌의정 홍이용(洪利用)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없다. 영응(永膺)대군은 사재부정 송복원(宋復元)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그리고 정의공주(貞懿公主)는 4남 2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領議政 정인지(鄭麟趾) 지음.

< 山義室記 > 전재

대동세보 수권속편(외 4종) 신청안내

구 분	페이지	가 격	신청부수
1. 대동세보 수권(속편)	1,134	50,000원	()권
2. 청송심씨세고선(한시집)	448	30,000원	()권
3. 증보축쇄판(1-50회)	400	20,000원	()권
4. 제향흘기(휴대용)	30	3,000원	()권
5. 종사수첩(휴대용)	120	3,000원	()권
6. 뺏 지		1,000원	()개

▶ 1, 2, 3 세권을 일시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4, 5, 6 세가지 물품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수령인 주소 및 송금내역

과 명	이 름	집 전 화	휴 대 폰
주 소		우 편 번 호	
송금일자	송 금 인	금 액	송 금 은 행
		()은행	()지점



수권속편 질 단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 1질 단위는 발송비 없음.
- ◆ 질단위 외에는 발송비 3,000원을 대금에 합산하여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주소는 번지와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기재, 집전화·휴대전화를 꼭 기재요함.
- ◆ 송금인이 본인인 아니면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 내 실 곳 ◀

우편번호 100-310 서울 중구 오장동 14-10(찬경회관)

TEL : 02)2267-7857, 2263-7897 FAX : 02)2269-7755

* 송금구좌 농협 084-01-193626(청송심씨대중회)

시원한 주왕산 청송 여름나기 기행

대중회 이사 沈星求

청송의 주왕산(가메봉 : 882m)의 풍치의 아름다움을 안내하고자 한다. 여름철 주왕산에 흠뻑 젖어 있는 폭포의 형용 할 수 없는 시원한 물줄기, 그 계류를 향하는 주왕산의 절골 계곡과 주산지, 달기약수터, 달기폭포, 주왕산 온천, 청송자연휴양림, 백석탄, 청송얼음골, 약수터, 인공폭포 등 여러 곳 중에서도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주왕산 국립공원이다. 골짜기에는 둥글게 모두 돌로 되어 있어 마음과 눈을 휘둥글게 하며 샘과 폭포가 절경이다. 폭포가 절경이라 참으로 극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이로운 멋진 산, 조선팔경에도 꼽힌다고 한다.

특이한 기암과 맑은 계류에 반하고, 평평한 곳에는 매표소가 있어, 주왕암과 주왕굴을 거쳐 내운동 마을까지 걸어도 좋으리라 생각한다. 국립공원에는 차량이동은 불가능하였다. 청송의 산행시작은 주차장에서 부터다. 매표소를 지나면 대전사 절집을 지나게 된다. 절집 뒤편에는 기암이 보인다. 옛날 주왕이 세웠다는 전설과 주왕이 신라 馬장군과 일전을 하였을 때 이 바위에다 지붕의 짚을 올려 두르듯이 하고 쌀뜨물을 흘려서 적을 현혹시켰다는 전설이 있다. 주왕산의 수문장다운 바위모양이 보인다.

여기에서 대전사를 소개한다. 672년(문무왕 12년) 의상대사가 창건했다는 설과 919년(고려 태조2년) 눌웅이 창건했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사찰에는「주왕내기 : 周王內記」를 보면 중국 당나라의 주나라라는 사람이 후주천왕(後周天王)이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당나라에 공격을 갔다가 크게 패하여 신라로 와서 주왕산에 숨었다고 한다. 이에 당나라가 신라의 주왕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자 마일성 장군 오형제가 주왕의 무리를 죽였다고 한다. 그 뒤부터 주왕이 숨었던 주왕산이라 부른다.

‘대전사’의 절 이름은 주왕의 아들 대전도군(大典道君)의 이름을 따서 나옹화상이 붙였다고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는 주방사(周房寺)라고 기록되어 있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대사 유정(惟政)이 승군을 훈련한 곳이라고도 한다. 이를 증명해주는 곳은 보광전(보물 제1570호).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이 사명대사에게 보냈다는 친필서신을 새긴 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 사찰은 무(武)와 연관되어 있는 위용스러운 듯이 보였다. 건축물은 조선중기에 불로 소실되었으며 후일에 다시 중창하여 오늘에 이른다고 한다. 멋진 주왕암이 이 름나게 해주고 있는 것 같다.

절집을 지나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을 정도로 탄탄한 길이 나온다. 주방전의 맑은 계곡의 물 흐름은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시원하다. 그렇게 대충 1300m정도 걸으면 제1팔각정 앞에 서게 된다.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인지 결정해야 한다. 곧바로 직진하면 제1폭포로 이어진다. 오른쪽 길은 주왕암과 주왕굴 코스다. 노약자가 아니라면 주왕암 코스를 선택할 것이다. 우측방향으로 가면 자하교를 건너게 된다. 경사도 이지만 염려는 되지 아니한다. 거리가 아주 짧다. 거리가 300m 정도로 짧다. 약간 다소 경사진 거리지만 견딜만하다.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 가파르기도 하다. 여기서 주왕암 일주문이 보인다. 대전사 보다 먼저 의상대사가 세웠다는 암자가 있고 가파른 바위틈 사이에는 세 개의 건축물이 있다. 인기척은 없었다. 주왕굴이라는 팻말 따라 절 뒤편으로 가보면 깎아지른 듯한 바위위로 철 사다리가 있다. 아찔하기도 하다. 주왕이 신라군대를 피해 숨었다가 화살에 맞아 숨을 거두었다는 주왕굴. 숨을 헐떡거리게 할 정도로 경사가 있는 곳이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올랐을까 궁금하기도 하다. 주왕이 갑옷과 무기를 숨겼다는 무장굴이 있다. 주왕암 가학루 앞에서 산길을 조금만 돌아가면 거리는 짧지만 가파르다. 제법 많이 돌기도 하는 길이다. 암자를 벗어나는 입구에는 ‘자연산책로’ 팻

말이 있다. 이 산책로 길은 어린이가 걸기에는 좋았으며 평탄한 길이다. 사람이 적어서 걷기 좋은 길이었다. 도중에 전망대를 만나게 되는데, 하늘을 향한 급수대와 연화봉이 보이며 장군봉의 신록의 자태를 볼 수도 있다.

능선길을 지나면 제2팔각정 앞에 나오며, 오르던 길과 합류하던 곳에는 나무로 만든 계단으로 걸어서 200여미터쯤 가면 웅장한 바위가 넓게 펼쳐져 있다. 바위사이 협곡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사방이 바위로 둘러져 있는 절벽 아래에는 흰 물줄기를 쏟아내면서 흐르는 천연적인 선녀탕이라는 구룡소가 큰 못처럼 되어 있다.

주왕산 제1폭포는 선녀폭포라고도 부른다. 낙차는 크지 않으나 거대한 암벽에서 폭포수 쏟아지는 소리는 제법 크게 들린다. 이렇게 멋진 풍경을 어디서 볼 수 있겠는가? 감탄사가 절로 나오게 하는 곳이다. 1킬로미터 정도 더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제2폭포(웅폭포) 팻말이 서 있다. 200여미터쯤 걸으면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있는 2단폭포를 볼 수 있다. 생각보다 웅장해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물놀이를 할 수도 없는 곳. 그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등산로를 따라 200여미터 오르면 제3폭포는 도로 옆이라 그냥 스쳐지나가는 사람도 드물다. 제3폭포는 제2폭포보다 웅장하다. 일명 쌍폭포라고 한다. 전체 높이가 약 25m정도로 주왕산에서는 가장 크다. 두 개의 웅덩이 사이로 큰 폭포 작은 폭포가 어우러지며 한 폭의 수채화 같기도 하다. 물놀이는 금지구역이다. 상단과 하단에 각각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다. 보기만 해도 검푸른 웅덩이는 주왕산의 정기가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서있는 것만으로도 여름더위가 가시는듯하다. 이 곳 등산은 좋지만 아직도 아쉬움으로 폭포를 지나면서 금은광이와 내운동 가는 길로 나누어진다. 금은광이 쪽으로는 달기폭포를 만나게 된다. 12미터 이상으로 보이며 낙폭으로 떨어지는 폭포는 웅장하게 멋지게 보인다. 찾아가는 길은 다르지만 달기폭포까지는 차량이동도 가능하다. 그래서 가벼운 여행을

沈영감 심민섭



하는 분은 대부분 내운동 마을을 선택하기도 한다.

청송의 마지막 오지 마을인 내운동은 제법 평평하게 주방전 최상류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폐교가 있는지 오래된 곳이기도 하다. 내운동 마을은 ‘전기없는 마을’이기도 하였다. 7가구 18명이 살았다고 한다. 대부분 등산객들에게 민박도 하며 살았다고 한다. 2007년 12월 마을은 철거되고 지금은 빈터만 남아 있는 곳이다. 하산길은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와야만 한다. 왕복 거리는 10km 넘게 많이 걸어 온 것 같다. 2010년 삼북더위 말복과 입추전의 무더위를 피해 왔으니 행복한 분위기의 주왕산의 하루여행이었다.

지방순회 뿌리교육

종인들 간에 친목을 다지고 문중의 뿌리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지방순회 뿌리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일가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자 : 2010. 10. 9(토)
2. 교육장소 :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253)
3. 참석대상 :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남성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10:00~10:50	내금위공중회 회장 인사	심응보
	대중회소개, 현조사적(1)	심종혁(총무이사)
11:00~11:50	현조사적(2)	심재열(문화이사)
12:00~12:50	점심	
13:00~13:50	총효사상	심구석(전 중학교 교장)

14:00~14:50	대중회 홈페이지	심종혁(총무이사)
15:00~15:50	입향조 사적	심응보(내금위공중회 회장)
16:00~16:50	특강	심완구(전 울산시장)

※ 교재와 중식은 무료로 제공합니다.

◇ 찾아가는 길 ◇

경부고속도로 : 언양 분기점 → 언양·울산 고속도로 → 울산요금소 → 울산 시내 → 신복로타리에서 우회전(부산방향) → 울산대학교(우측)와 월드컵경기장(좌측) 지난 후 3거리에서 좌회전 → 농업기술센터(두현저수지 맞은편)

◇ 연락처 ◇

- 청송심씨대중회 : 사무실(02-2267-7857), 총무 심종혁(016-451-8564)
- 내금위공중회 : 회장 심응보(016-863-0981), 총무 심수보(011-759-6038)
- 농업기술센터 : 052-247-8301~3

宗 事 消 息

五世祖 安孝公 諱 溫(휘:온) 仲秋節祀 奉行

9월 22일(중추절)



初 獻 : 行鎮(安孝公宗會 會長)
亞 獻 : 彦浩(安孝公宗會 指導委員)
終 獻 : 文秀(安孝公宗會 監事)
大 祝 : 相弘(安孝公宗會 財務理事)
執 禮 : 載玉(安孝公宗會 總務理事)
執 事 : 彦村(墓下管理理事) 載澈(大宗會理事)
參班員 : 行鎮 會長 外(43명)

靑松 岳隱公宗會 三王后 墓所 省墓

靑松 약은공중회에서 7월 26일 이른 아침 6시에 관광버스(45명)로 출발하여 11시 40분에 서울 노원구 공릉동 강릉(康陵)에 도착하였으며, 서울에 계신 宜七 회장님이 합류하여 성묘를 하였다.

대중회 임원들이 현지에 나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載烈 문화이사가 13代 明宗大王妃 仁順王后와 동구릉에 계신 20代 景宗大王妃 端懿王后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니 모두가 박수로 감사함을 표 하였습니다.

다음은 4km 동남쪽(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東九陵에 도착하여 15분 거리에 위치한 경종대왕비 단의왕후 陵 성묘를 마치고 내려와 대왕갈비탕집에서 점심식



서울 노원구 공릉동 강릉(康陵)에서의 단체사진

江原監營祭 行事 舉行

강원도 원주에서는 조선조 500년 간에 부임하셨던 500명의 관찰사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력행사를 재현하는 행사가 9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부터 거행되었다. 원주명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남부시장 → KBS방송국 → 원일로 → 지하상가 → 중앙로 문화의 거리 → 강원감영터까지 약 2.2km(1시간 30분 소요) 구간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巡歷行使라함은 道觀察使가 각 고을을 순찰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피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그 정상을 위로 보고하고 조정의 시책을 백성들에게 하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고을의 현감이나 관리들의 선정과 악정에 관한 문제를 함께 다루게 된다.



순력행사(先祖 觀察使 7人的 큰 깃발을 든 선발대)
參席者 : 相烈 洪燮 良燮 載滿 禹섭 惠夏 勳輔 左輔 種福(原州 : 正輔 호섭 재목)

이 행사는 조선조에 있었던 순력행사를 재현하는 행사였기에 강원감사를 역임하신 500명의 후손들은 각각 선조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여하였다.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신 우리 선조는 일곱분은 다음과 같다.

- 12세 沈 諤 : 後에 判義禁府事. 靑松君.
14세 沈 杵 : 禮曹參判.
17세 沈宅賢 : 判義禁府事

- 17세 沈聖希 : 禮曹參判.
17세 沈聖希 : 吏曹參判
17세 沈晉賢 : 禮曹參判.
18세 沈星鎮 : 工曹判書. 漢城府判尹
18세 沈 鏞 : 都承旨. 京畿觀察使. 禮曹判書
오늘의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새삼 조상님들의 훈업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先賢님들의 높고 깊은 음덕을 헤아릴 길이 없다. 행진을 하는 곳곳에는 행사를 보러온 1000여명의 시민들의 환호와 갈채를 맞이하니 三韓甲族의 의미가 이런 것이라 고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한 하루였다.

- 문화부 -

사를 하고, 서울분과 청송종인은 아쉬움을 나누며 작별하였다.

버스로 여주 영릉(세종대왕 · 소헌왕후 능)에 성묘하고, 신록사를 관광한 후 무사히 청송에 도착하였다.



강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載烈 문화이사

圖書 贈물에 감사합니다.
〈大宗會 理事 沈 洪燮〉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諱:煥之) 註譯
▷靑松沈氏 晩圃家 寄贈古文書(諱:煥之) 印影
〈경기도 박물관 편〉
▷靜坐窩公年譜

강원도 흥천군 의회 부의장
심 형 기
첫 모범국선대리인 표창수여
심 봉 석 변호사

四世祖 靑城伯 諱 德符(휘:덕부) 墓所 도래석 補修工事

연천 靑城伯 할아버지 묘소의 서편 쪽 도래석이 풍화작용으로 어그러져 2010년 8월 6일(금) 한쪽 면을 완전히 헐어낸 후 다시 도래석을 조립하여 복구하였으며, 봉분에 이끼가 끼고 잔디도 잘 살지 않아 봉분의 흙을 걷어내고 새 흙을 실어다 보듯한 후에 잔디를 새로 심었다.

말복을 이틀 앞둔 날이라 기온은 33도를 기록하여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벌초를 한지 2개월도 채 안되었는데 웬 풀은 그렇게도 무성하니 원망스럽기만 하였다.

할머니 묘소의 잡초를 뽑고 나니 파란 잔디가 돋보였으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흠족한 마음으로 귀가하였다.

- 대중회 -



2010/08/06

예절(禮節) 한 토막 ③

◎ 묘지 삼위(三位) 합편(合窆)은 서(西)쪽에서 동쪽으로 남편 초취 재취 순

☞ 초취(初娶)부인을 상처(喪妻)하고 재취해서 아내가 들인데 남편이 죽고 재취부인도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한 묘지에 매장할 때와 봉분을 따로 세 개를 만들 때에 남편과 초취부인과 재취부인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의 지방에 세분을 함께 쓸 때의 위치와 하나의 묘비에 세 분을 같이 쓸 때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 봉분 하나에 부부를 매장하는 것을 합편(合窆)이라 하고, 봉분을 따로 하는 것을 각편(各窆)이라고 합니다. 부인이 들이라 셋을 함께 매장할 때도 같습니다. 위치는 산 사람은 남자가 동쪽, 여자가 서쪽(男東女西)이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남자가 서쪽이고 여자가 동쪽(考西·東)입니다. 그리고 상석과 하석의 위치는 산 사람은 동쪽을 상석(生者以東爲上)으로 하고, 죽은 사람은 서쪽을 상석(死者以西爲上)으로 합니다. 이어서 초취부인과 재취부인은 당연히 첫 번째 부인이 위이고 두 번째 부인이 아래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일은 예절에서는 묘지가 지형상 어디를 향했든 남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묘지에 묻힌 어른이 남쪽을 향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묘지는 항상 남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의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두 부인의 묘지는 각편이든 합편이든 남편이 제일 서쪽이고, 초취부인이 남편의 바로 왼쪽(동쪽)인 두 번째이고 재취부인은 초취부인의 왼쪽인 세 번째(제일 동쪽)가 되어야 합니다. 한 장의 위패(지방)에 세 분을 같이 쓸 때에는 길이(높

이)가 24cm에 너비가 12cm 정도의 종이를 위쪽을 등글게 오리고 아래쪽을 직선이 되게 올리는데 이것은 신주(神主)의 모양(하늘은 등글고 땅은 평평하다(天圓地方)는 이치로 그렇게 되었다.)을 따랐고, 신주가 없어서 지방을 쓰는 것이다. 지방 종이의 모양을 신주의 모양과 같게 하는 것입니다. 예절의 동서남북(東西南北)은 언제든지 위(上席)를 북(北)으로 설정해서 정하는 것이므로 북쪽에서 남쪽(아래쪽)을 보고 왼쪽(앞에서 지방 종이를 보아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그 반대쪽인 앞에서 지방 종이를 보아서 왼쪽이 서쪽입니다. 이상의 원칙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면 지방 종이를 바닥에 등글 쪽이 위가 되게 놓고, 제일 왼쪽(西)에 남편을 쓰고, 그 다음(中)에 초취부인을 쓰고, 제일 오른쪽(東)에 재취부인을 씁니다.

그리고 비석은 죽은 이의 시신도 아니고, 신위(神位)도 아니고, '누구의 묘지'라고 쓰는 글입니다. 글을 세로로 종서(縱書)할 때는 오른쪽 줄부터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첫째 줄에 남편을 쓰고(제일 아래에 '의묘-之墓-'),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초취부인을 쓰고(제일 아래에 '附左中'), 제일 오른쪽에 재취부인을 쓰면(제일 아래에 '附左東')됩니다.

◎ 지방의 글씨는 반듯하고 또렷하게 쓰는 것이다.

☞ 지방의 글씨는 신(神)을 나타내는 것이라 희미하게 써야 한다고 하는 데 맞는 말입니까

☞ 처음으로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패(位牌)를 보았지만 희미하게 쓴 신위를 본 일도 없습니다. 어떤 예서(禮書)에서도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반듯하고 또렷하게 쓰셔야 합니다.

◎ 무축단헌(無祝單獻)은 상중 기제(喪中忌祭)에 적용되기도 한다.

☞ 제사에 무축단헌(無祝單獻)이라는 말이 있는데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일제사에도 축문을 읽지 않으면 술을 한 잔만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 원칙적으로 제사에는 축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윗대(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의 제사를 받들던 봉사자(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인 상주들이 약 백일 만에 지내는 졸곡까지는 무시곡(無時哭 :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곡을 하는 것)을 하며, 지극히 슬퍼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지내던 제사를 지낼 날이 돌아와도 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 약 백일 만에 지내는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다음에는 약식으로 지내야 합니다. 약식이란 축문을 읽지 않고 술을 한번만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던 봉사자가 죽으면 당연히 죽은 이의 큰아들이 제사를 물려받아 지내야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픔이 지극하여 다른 제사를 지낼 수 없었는데 졸곡을 지내면 슬픔이 가셔서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당에 모신 조상들의 신주는 죽은 아버지를 기준으로 顯考 顯祖考라고 되어있어 삼년이 지나 탈상(脫喪)을 하고, 담제(禫祭)후에 새로 제사를 받드는 장자손을 기준으로 신주를 고쳐 쓰는 길제(吉祭)를 지내면서 신주를 고쳐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주를 고쳐쓰기 전이라 축문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주는 돌아가신(먼저 번) 봉사자인 아버지를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사를 지내려는 장손의 할아버지가 아버지(顯考)로 되어있고, 증조할아버지의 신주가 할아버지(顯祖考)로 되어있어 축문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문을 읽지 않고 지내게 되어 무축(無祝)이 되고 축문을 읽지 않으니 약식 제사가 됨으로 술을 한 번만(單獻)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제(吉祭)때에 신주를 고쳐 쓴 다음부터 정식으로 축문을 읽고 술을 세 번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축문을 쓸 줄 몰라서 축문을 읽지 않을 때는 약식제사가 아니므로 술을 세 번을 올려야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할 것은 아버지의 상중에 무축단헌으로 윗대의 제사를 지낼 때는 아버지를 위해서 입은 상복을 벗고 길복(吉服 : 도포)을 입고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 理事 洪燮 -
<다음호에 계속>

심갑보 부회장의 자기경영노트

내 인생의 독립정신



심 갑 보
대중회부회장

나는 경상남도 밀양 땅(밀양군 삼랑진면 안태리) 시골에서 '청송 심씨' 가문의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모두 객지에 나가 생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유년시절을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학자(漢學者)이셨던 조부는 9대 종손에게 천자문은커녕 제때 초등학교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니다. 친구들이 모두들 학교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때를 쓰다 시피 해서 겨우 아홉 살이 되어서야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목에 종기가 난 손자를 10

리나 떨어진 삼랑진 역전의 병원까지 혼자 보내어 수술을 받고 오게 하셨는데, 당시 10리나 떨어진 병원을 오가면서 조부를 적잖이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큰 전환을 겪으면서, 조부의 손자에 대한 외견상의 무관심이 내 인생의 또 하나의 큰 가르침이자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30대 초반부터 건설업을 하시던 부친이 62세의 한창 연세에 별세하심으로써 나는 유년 시절부터의 원대한 꿈이었던 학자의 길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던 사업가의 길로 들어섬으로써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벌써 은퇴했어야 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중견기업에서 전문경영인으로 현업에 종사하며, 경제단체의 부회장(경총)과 정부의 노사관련대책 각종 위원으로 활동하고, 몇 해 전엔 모교인 영남대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2년간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어 어릴 적 꿈을 다시 이

루기도 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가 종손인 본인을 초등학교도 늦게 보냈고 한문 한 글자 가르쳐주시지는 않았지만 가문의 종손으로서의 긍지만은 분명히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손자를 10여리 병원 길을 혼자 가도록 하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도 기차를 타고 삼랑진에서 대구까지 가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혼자 치르고 진학을 하게 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독립심을 길러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친이 작고한 후에도 이러한 독립정신이 밑거름이 되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친구들처럼 초등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시간동안 가졌을 배움에의 결핍과 열망이야말로 삶의 모토가 되어 '배움'의 초석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선재세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다시 씨를 뿌리고, 꽃을 심고, 물을 주며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는 오늘의 세대여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대신 그 정신을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부회장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
경제단체 부회장(경총)

내장산 단풍

심 황섭

세상 막바지 여기
자연의 선물이 펼쳐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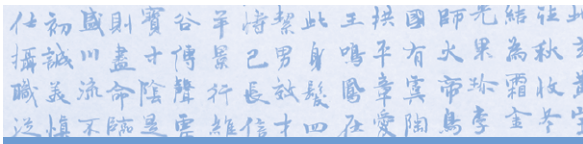
그 어느 계절도
못 쫓아노는 불붙은 단풍

색깔과 산의 숨소리가 뒤엉켜
발걸음 멈추게 하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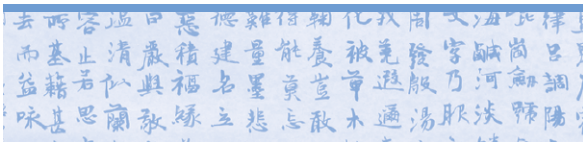
자연을 같이 하면
무병장수한다 하였거늘

나도 속세를 버리고
자연의 순리대로 살까나.

狗彘食人食而不知檢하며 塗有餓莩而不知發하고
 구체식인식이부지검 도유아표이부지발
 人死어든 則曰 非我也라 歲也라 하나니
 인사 즉왈 비아야 세야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 非我也라 兵也리오
 시하이어척인이살지왈 비아야 병야



漢 字 이야기



개와 돼지가 사람의 양식을 먹되 단속할 줄 모르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며, 사람들이
 굶어죽으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흉작이 그렇게 한 것
 이다' 라고 하니, 이것은 사람을 찢러 죽이고 말하길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병기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 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맹자는 백성이 부모와 어른을 봉양하고 또 장송하는 데
 유감없게 하며 젊은 백성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것이 王道의 시작이자 완성이라고 역설한 후, 양혜왕
 이 백성의생활조건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狗彘(구체)는 개와 돼지다. 人食에서 앞의 食은 동사,
 뒤의 食은 명사이다. 檢은 制(제)와 같다. 혹자는 檢은 斂

(염)과 같아, 풍년에 양곡을 수렴(收斂)하는 일을 가리킨다
 고 보았다. 莩(표)는 굶어죽은 사람이다. 發은 倉廩(창름)을
 열어 賑貸(진대)함이다. 歲는 한 해의 豊凶(풍흉)이다. 刺
 (척)은 '찌를 척' 兵은 兵器(병기)이다.

양혜왕은 한 지역의 作況(작황)이 나쁘면 다른 곳의 곡
 식을 옮겨 백성을 구휼했지만 그것은 민간의 곡식으로 그
 려게 했을 뿐이다. 맹자는 양혜왕이 백성의 재산을 제정하
 지 못하고 개와 돼지가 사람의 음식을 먹도록 내버려 두는
 데다가 백성이 굶주려 죽는데도 국가의 창고를 열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혜왕이 그러고도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음을
 풍흉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마치 칼날이 사람 죽인 것만 알
 고 칼날 잡은 자가 사람 죽인 사실을 모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오늘날 정치가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경제
 의 어려움을 천재지변이나 세계정세의 탓으로 돌린다면
 맹자의 따가운 비판을 받지 않겠는가.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공 지 사 항

대중회에서 금년말 발행계획인「청송심씨 대중회 40년
 약사」에 게재할 파종회와 지역종회 임원명단을 제출토록
 요청 드린바 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종회가 많아
 재공지하오니, 아래의 종회 명단을 참고하여 임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파지역 종회에서는 10월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 14-10 (찬경회관 내)
 청송심씨 대중회 문화부
 우편번호 100-310
- 팩스 : 02-2269-7755

- 信川公派 春川종회(11세조 휘 : 孝謙) / 회장 : 相汶
 判官公派 馬山종회(11세조 휘 : 悌謙) / 회장 : 순보
 軍資監主簿公派 益山종회(12세조 휘 : 沃) / 회장 : 閔燮
 陽智公派 左承旨公종회(12세조 휘 : 淑) / 회장 :
 正言公派 鎭川月村종회(12세조 휘 : 仁禧) / 회장 : 載德
 贈參判公派 종회(15세조 휘 : 漢弼) / 회장 : 재장
 濟詰公派 종중(17세조 휘 : 濟詰) / 회장 : 鑄澤
 生員公派 法申宗會(19세조 휘 : 燁之) / 회장 : 載烈
- 岳隱公派 미제출
- 奉翽公派 종회(철원) / 회장 : 相郁

- 지역종회
- 남서울종회(회장 : 相直) 부산종회(회장 : 相均)
 - 대구종회(회장 : 烜燮) 인천종회(회장 : 相振)
 - 부천종회(회장 : 鍾洪) 성남종회(회장 : 龍澤)
 - 춘천종회(회장 : 仁燮) 삼척종회(회장 : 茂植)
 - 청주·청원종회(회장 : 成輔) 증평종회(회장 : 相玉)
 - 단양종회(회장 : 鍾燮) 대전·충남종회(회장 : 逸燮)
 - 공주종회(회장 : 載善) 부여종회(회장 : 甲澤)
 - 당진종회(회장 : 相夏) 전북종회(회장 : 相泳)
 - 전주종회(회장 : 秀永) 익산종회(회장 : 相泳)
 - 金泉종회(회장 : 宜石) 성주·고령종회(회장 : 賢錫)
 - 안동오평종친회(회장 : 용선)

임원명단 제출 종회명 (2010. 9. 20 현재)

■ 파종회

- 都摠制公派 종회(원주) / 회장 : 敏燮
- 判事公派 미제출
- 知成州事公派 종회(長城) / 회장 : 相錄
 규암공(11세조 휘 : 安栻) 화수회(안양) / 회장 : 洵燮
 집의공(16세조 휘 : 廷傑) 종회(儒城) / 회장 : 揆燦
- 仁壽府尹公派 종회(서울) / 회장 : 晶求
 都正公派 谷城종회(9세조 휘 : 淳) / 회장 : 正植
 內禁衛公派종회(11세조 휘 : 澁) / 회장 : 應輔
 宇發종회(13세조 휘 : 憫) / 회장 : 우흥
 參判公派종회(14세조 휘 : 之治) / 회장 : 相華
 檣公派종회(15세조 휘 : 檣) / 회장 : 春植
 靑平都尉公派종회(15세조 휘 : 益顯) / 회장 : 求亨
 通川公派종회(16세조 휘 : 廷耆) / 회장 : 基禎
 同知敦寧公派종회(16세조 휘 : 廷紀) / 회장 : 晉燮
 玄齋公派종회(17세조 휘 : 師正) / 회장 : 正求
 成川公派 梧南종회 (18세조 휘 : 鍊鎭) / 회장 : 大植
 魯學公派종회(21세조 휘 : 魯學) / 회장 : 愚赫
- 安孝公派 종회(수원) / 회장 : 行鎭
 夷敬公派 종회(7세조 휘 : 瀚) / 회장 : 載萬
 判官公派 종회(7세조 휘 : 浚) / 회장 : 相烈
 贈承旨公派(10세조 휘 : 蕤) 丁樹종회 / 회장 : 哲輔
 林川公派 종회(10세조 휘 : 鎭) / 회장 : 宜煥
 僉正公派 종회(10세조 휘 : 鎡) / 회장 : 載甲
 谷山公派 종회(10세조 휘 : 鎡) / 회장 : 堯澤
 豐德公派 종회(11세조 휘 : 荀) / 회장 : 載榮
 訓導公派 光州金堂山종회(11세조 휘 : 友賢) / 회장 : 相八
 訓導公派 光州松岩종회(13세조 휘 : 舜省) / 회장 : 在益
 訓導公派 光州斗岩종회(15세조 휘 : 瑛容) / 회장 : 憲燮
 訓導公派 光州碧岩종회(15세조 휘 : 璿容) / 회장 : 永烈
 宣武功臣派 종회(11세조 휘 : 友信) / 회장 : 觀燮
 司禦公派 종회(11세조 휘 : 友寬) / 회장 : 典燮
 信川公派 종회(11세조 휘 : 孝謙) / 회장 : 胤燮

파/지역종회 임원명단

2010년 9월 현재

구 분		名	비 고
종회명	파종회		()세조 (휘 :)
	지역종회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직 위	이 름		
고 문			
지도위원			
회 장			
부 회 장			
총 무			
감 사			
이 사			
기 타			

※각 파종회/지역종회 총무님께서 현재의 임원명단을 본 양식에 明記하여 보내주시고 향후 임원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대중회로 즉시 통보하시어서 파/지역종회의 임원현황이 대중회에서 정확히
 파악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일 : 2010년 10월 15일(금)까지

人事

재단: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장
 재계: 부산고검 검사
 재전: 광주지검 강력부장
 재술: 검찰보호직 대덕소년원 분류보호과장
 형법: 창원지법 판사
 덕법: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정보화기획관
 소회: 이화여대 중어중문학전공 주임교수
 상학: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파트너>
 재우: HMC투자증권 양재지점장
 정회: KBP펀드평가기관 컨설팅2팀장
 민철: 안동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파견>
 은보: 강원대 흥천건강 의료기구연구센터장
 재웅: 숙명여대 홍보실장
 창용: 컴퓨터국장<기획1본부장>
 은석: 중국초 교장
 대섭: 방이초 교장
 규학: 서울광진학교 교감
 해련: 한국관광공사 관광문화개선팀장
 우범: 신한은행 인천지점장
 영수: <1급>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기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 센터장
 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
 재규: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팀장
 재극: 금호건설 상무보

任 員 會 費

宜洛	2010	500,000	명예회장
庚周	2010	300,000	부회장
載求	2010	50,000	삼척
載警	2010	50,000	안동
載金	2010	50,000	잠실
載玉	2010	50,000	춘천
光澤	2010	50,000	안성
晞燮	2010	50,000	춘천
永鍾	2009~2010	100,000	보령
鍾德	2010	50,000	光州
上銀	2010	50,000	김포

宗 報 贊 助

태식	30,000	제천
상완	100,000	건대교수
상영	50,000	
승태	50,000	부천
載警	50,000	인천
상만	50,000	종로3가
동섭	30,000	홍성
희보	30,000	시흥시
형무	30,000	김포
司禦公宗會	100,000	(諱:友寬)
재천	30,000	곡성
仁燮	50,000	춘천

康主簿公 山所에 關하여

(恭肅公 養父 康主簿公 奉享會)

善山에 모셔져 있는 강주부공은 6世祖 恭肅公의 양부로 무술육사 때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 설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훗날 領相에 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학문을 닦아주신 분이시다. 더구나 康주부공께서는 돌아가시면서 2,000석지기의 全財産을 공숙공에게 상속하셨고, 공숙공은 강주부공의 양부모의 제사를 친부모처럼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물려받은 9世祖 진사공(휘 興源, -7世祖 夷敬公의 孫子)께서 무육으로 외손(사위 덕산 황고산)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황고산(黃孤山)께서 또 무육으로 딸에게 다시 外孫봉사를 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德水李氏門中이다. 처음에는 강주부공과 황고산 兩內外분을 봉행하여 왔으나 언제부터인지는 모르나 추측컨대 약 100년 전부터는 덕수이씨 문중에서 시향을 봉행치 않음으로써 우리 沈氏문중에서 다시 강주부공의 시향을 올리게 되었는데 位土

는 전혀 인수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위토가 전혀 없는 형편에 이씨문중에서는 따로 분필한 2,000여평의(山所가 있는) 임야를 구미시에 기증 하겠다 함으로 산소의 안전을 위해 시묘암을 문화재로 지정하여줄 것을 구미시에 요청하였는데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우선 시묘암 앞에 있는 무허가 집부터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며, 이럴 경우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와 함께 산소도 보존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우리 奉享會에서는 현지의 지역종회와 상의하여 3,500만원을 주고 집을 인수하여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문화재로 지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일들을 하기위해서는 일가분들께서 성금을 내어주셔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목표했던 금액이 조금 부족하여 일가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그간의 성금명단을 아래에 게재합니다.

▶任員名單 2010년 6월 30일

顧問: 堯澤 達燮 斗燮 龍錫
 諮問委員: 行鎮 相泳 寬錫 成輔 正輔
 會長: 永澤
 副會長: 相八 載烈 宇正 龜錫 鑄澤
 監事: 相直 載玉
 運營委員: 光燮(공숙공) 載爽(이경공) 吉燮(수찬공)
 相烈(내자시판관공) 洪燮(호창공) 奉燮(중익공)
 相慶(신천공) 良燮(수운관공)
 淸澤(춘천, 신천공)
 總務: 種福(仁輔)
 都 有 司: 鉦圭(선산) 天錫(선산)
 義孫奉祀: 李昌鏞 李載映 李載和
 信川康氏: 康鍾鎮
 理事:
 光澤 在安 玄根 春澤 萬澤 相達 相勳 相厚 相英 相弘
 相汶 仲根 憲燮 興燮 百燮 康燮 良燮 明燮 正燮 奉燮
 載晃 容圭 載澈 載德 載緒 載善 載文 載勳 載滿 允輔
 元輔 雄輔 俊輔 左輔 一用 賢錫 海哲 相瑞 厚燮
 忠澤(공숙공종회 감사) 鎮燮(내자시판관공종회 총무)
 載洪(호창공종회 총무) 載洪(구미)
 光燮(도내리) 光燮(대치동) 봉섭(대전) 相烈(원주)

▶獻誠金

6. 3	相八(光州)	10,000,000
6. 29	龜尾宗親會	300,000
6. 30	種福 奉享會總務	200,000
7. 5	相厚(안산)	50,000
7. 8	載緒(文化部長)	100,000
7. 13	載勳(김포)	500,000
8. 2	무숙공과종회(김포)	1,000,000
8. 5	載烈(文化理事)	100,000
8. 10	僉正公派宗會(김포)	1,000,000
8. 10	忠翼公派宗會(양평)	1,500,000
8. 10	內資寺判官公派宗會	2,000,000
8. 13	在安(인천)	100,000
8. 17	彦村(수원)	100,000
8. 30	曉窓公派宗會	3,000,000
8. 30	司禦公派宗會(諱 友寬)	300,000
9. 3	相泳(익산)	200,000
9. 7	安孝公宗會	13,000,000
9. 9	斗燮(大宗會 會長)	10,000,000
9. 14	載晃(夷敬公派 財務)	100,000
9. 17	相直(인천)	50,000
合計: 43,600,000		



경영학박사 취득

沈亨燮 (安孝公宗會 財務理事 相弘의 차남, 1973. 12. 9日生)이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지식경영성공요인이 재난관리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 통과되어 2010. 8. 20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 하였다.



8.15 광복절 포상자

건국포장

沈灌之 (의병), 沈能奎 (의병)
 沈宜鳳 (의병), 沈宜植 (의병)

건국훈장 애족장

심재운

대통령표창

沈載洵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光	010-9236-2331
			琬澤	011-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함 열	載集	011-676-1150
3 세조	청화부원공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館長	載 洪		054-874-3400
				018-505-7611
			악은공종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

송금안내

任員會費 · 贊助金 · 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족보 수단금 송금안내

· 농 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종회)

수단(收單)은 우편, 팩스(2269-7755) 또는 이메일 : cshimssi@kornet.net로 보내주시고 수단금은 상기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267-7857